

하도록 요청해 이에 응했다」고 6월초 Donnelly 씨가 밝혔다.

10년전 Campbell씨가 짧은 기간 동안 회장과 사장직을 겸직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AECL사의 한 간부는 후임 사장이 결정되는 대로 Donnelly 씨에게 회장직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스코트랜드 태생인 당년 56세의 Donnelly씨는 2년전 심장수술을 받은바 있으며 그동안 일 부담을 덜기를 원해 왔다. 「회장직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간부는 말했다.

한편 지난 16개월간 AECL회장으로 있던 Beneteau 씨는 지난 5월 하순 특별한 사임성명도 발표함이 없이 조용히 물러났다.

CANDU 爐 名稱 變更

캐나다原子力公社(AECL)는 현행의 CANDU 爐 명칭에서 모델번호와 電氣出力이 혼동되어 이를 변경사용하기로 하였다.

AECL의 出力增加計劃에 따라 改善된 設計에서는 모델번호와 出力容量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면, CANDU 300의 경우 電氣出力容量은 300MWe가 아니라 450MWe級이다. 따라서 AECL은 CANDU 爐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사용한다.

- CANDU 300 →CANDU 3
- CANDU 600 →CANDU 6
- CANDU 950 →CANDU 9

또한 各各의 CANDU 모델에서는 改善된 設計를 구분하기 위하여 일련의 Mark(Mk)번호를 부여키로 하였다. 예를 들면, 出力이 600~640MWe인 기존의 CANDU 600은 CANDU 6Mk I 으로, 電氣出力이 650~800MWe가 될 현재 出力增加設計로 發注된 爐는 CANDU 6Mk II 으로, 750~1,000MWe級이 될 新型CANDU 600概念은 CANDU 6Mk III 가 될 것이다.

西 獨

ABB社, 유고 Krsko 플랜트 SG 튜브補修工事 受注

서독의 ABB Reaktor사(前의 Brown Boven Reaktor사)는 유고의 Nuclearna Elektrarna Krsko사와 Krsko 플랜트 PWR의 시험 및 보수를 위한 5년 계약을 맺었다.

ABB Reaktor사의 관계자들은 이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중의 하나는 지난 6월에 끝난 한국의 고리-1호기 증기발생기 보수공사였다고 말하고 이 공사는 지금까지 증기발생기 보수계약 공사로는 세계최대의 것이었다고 했다. 이 두 유니트는 모두 WH사 PWR 다.

오랜 준비작업 끝에 ABB Reaktor사는 금년 3월에 고리-1호기 증기발생기 2대에 대한 튜브 보수공사를 시작했었다. 총 1,483개의 프리킹된 튜브를 빼내고 560개의 스리브가 용접 설치됐다. 이 공사중에 금속조직 검사를 위해 2미터 길이의 튜브 샘플이 채취되고 100% 튜브에 대해 와전류검사가 실시됐다. 이 공사의 총공사비는 1천만 마르크(560만불)이상이었다고 산업계 소식통이 전했다.

ABB사는 고리-1호기 공사에 사용될 manipulator와 보수장비를 설계, 제작했으며 이 공사에는 ABB Reaktor사로 부터 45명의 전문기술자들이 참여했다. 이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 ABB사는 18권의 품질보증서류를 한국전력에 제출했다.

한국에서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동안 ABB사는 6월 6일에 Krsko 플랜트 증기발생기 보수를 위한 또하나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ABB사는 앞으로 5년간 Krsko 플랜트 증기발생기 튜브의 와전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결과 증기발생기 튜브 균열 정도가 튜브 두께의 40%

를 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튜브들은 프리징된다. 지금까지 Krsko증기발생기 보수작업은 대부분 KWU사에서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Krsko플랜트에서 증기발생기 문제로 원자로출력 손실을 가져온 일은 없었다」고 ABB사 관계자는 말하고 「그 이유는 WH사 증기발생기는 20% 마진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ABB사는 Krsko증기발생기 공사를 금년 가을, 이 플랜트의 계획정지보수기간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스위스 NOK사의 Beznau유니트에 대해서도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을 실시한바 있는 ABB사는 KWU사와 마찬가지로 Beznau-1호기 증기발생기의 앞으로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협의해왔다. 그러나 NOK사는 증기발생기 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放射線防護廳 新設키로

서독은 핵연료의 보관과 저장, 수송 등의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연방방사선방호청」의 신설에 대해 각의에서 거의 합의되었다.

이번의 결정은 동국의 뉴켄社와 그 자회사인 트런스뉴크리어社가 원폭재료가 될 수 있는 핵物質을 서독에서 리비아와 파키스탄에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의혹을 받는 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省(BMU) K·테프파장관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다.

방사선방호청은 각 관계기관의 部局을 합병하여 구성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방물리·기술연구소(PTB)의 방사성폐기물보관·저장부, 연방보건청·방사선위생학연구소의 환경방사능모니터링중앙사무소와 방사성물질·환경부, 환경방사능연구소 등이 함께 한다.

이미 재무장관과의 사이에서는 수년내에 100에서 120의 새로운 포스트를 만들기로 합의되어 있고, 니더작센州에서는 同廳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동청의 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연료의 저장, 수송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보관과 저장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전의 허가 등이 있다.

國際機構

플랜트性能指標 統一案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된 원자력플랜트 性能指標가 2년내에 출현할 것으로 산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회사들은 금년 여름 美아틀란타사에서 열리는 美원자력발전운전협회(INPO) 회의에서 플랜트 성능에 관한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게 된다. 이 회의는 INPO와 Unipede(국제 발송전사업자 협회)를 연결시킬 뿐 아니라 신설된 세계원자력 사업자협회(WANO)와도 연결된다. WANO는 자체의 범세계 사고보고 시스템에 의해 교환하는 데이터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인 기관이다.

거의 2년 가까운 작업끝에 Unipede의한 전문가 그룹은 원자력플랜트 성능을 나타내는 7가지의 주요성능지표에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화력플랜트에 대해서는 6가지를 설정했으며 이 중 일부는 원자력의 지표와 중복되는 것도 있다). 이 그룹은 이미 설정된 지표를 상세히 규정함은 물론 안전시스템의 성능과 플랜트 환경내의 방사능방출과 관련이 있는 주요지표들을 곧 추가 설정할 것이다. 기존 지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플랜트 성능이 適正值以下로 되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INPO는 1985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10가지의 원자력플랜트 성능지표를 재조정할 것을 고려중이다. INPO의 분석 및 엔지